

- **주요 뉴스:** 연준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인상 강조
 - 미국 바이든 대통령, 미국 우선주의 및 중세 기조 재확인. 중국과는 경쟁 관계
 - ECB 부총재,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과도하게 낙관적. 3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
 - 중국 단기금리, 2년 만에 최고치. 신용 수요 회복 등에 기인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연준 주요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1.1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하락[-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, 일부 부진한 기업실적 등이 영향
 유로 Stoxx600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등으로 0.3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 등이 배경
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.1%,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ECB 긴축 지속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1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59.8원, -0.3원) 강보합, 한국 CDS 보합

		2/8일	2/7일	전일대비			2/8일	2/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17.9	4,164.0	-1.11%	국채 금리 10y	미국	3.61%	3.67%	-6bp
	유럽	459.46	458.19	0.28%		독일	2.36%	2.35%	1bp
	중국	3,232.1	3,248.1	-0.49%		영국	3.31%	3.32%	0bp
	일본	27,606	27,685	-0.29%		CDS 5y	한국	42bp	42bp
	한국	2483.6	2,451.7	1.30%	위험 지표	중국	57bp	57bp	0bp
	달러지수	103.48	103.43	0.05%		EMBI+	-	370	-
환율	유로화	1.0712	1.0726	-0.13%		VIX	19.63	18.66	5.20%
	엔화	131.40	131.07	-0.25%		WTI유	78.47	77.14	1.72%
	위안화	6.7921	6.7846	-0.11%	원자재	구리	403.6	408.1	-1.10%
	원화	1,260.1	1,255.3	-0.38%		금	1,875.5	1,873.1	0.1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인상 강조

-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작년 12월 제시되었던 연준의 금리 전망이 여전히 타당한 지침이며,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 향후 수년 동안 제약적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. 또한 연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면 임금상승률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
-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슈카리 총재는 물가 및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. 특히 금리상승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
- 연준의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며,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. 양호한 고용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 여력 강화는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
- 연준의 쿡 이사 역시 향후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. 다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강도는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부연. 한편 그 동안 시행했던 통화긴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첨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미국 우선주의 및 증세 기조 재확인. 중국과는 경쟁 관계

-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산 제품 구매(Buy American) 정책을 확대하고 미국에서 공급망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. 한편 초부유층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
- 중국과 협력할 수 있으나,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. 또한 중국 등 어느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언급

■ 미국 '22년 12월 도매재고, 증가폭은 30개월래 최저. 수요 둔화 등을 반영

- 작년 12월 도매재고는 전월비 0.1% 늘어 11월(0.9%) 대비 낮은 수준. 이는 기업들이 수요 둔화를 대비하여 생산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. 한편 항목별 기준으로는 자동차, 전자제품 등이 크게 늘었고 가구 등은 감소

- ECB 부총재,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과도하게 낙관적. 3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
 - 데 쿤도스 부총재는 3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시장의 인플레이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발언.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뉘 총재도 3월에 ECB 금리인상이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, 5월 0.50%p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
- ECB, 역내 은행들의 부실 대출 최소화를 추진할 방침. 경기 부진 등을 대비
 - 은행감독위원회는 일부 은행이 경우 대손충당금 혹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여유 자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며, 이에 부실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. 다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그 동안의 금리상승 영향으로 이익이 늘었고, 이를 활용하여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
- 신용평가사 Fitch,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. 소비 개선 기대
 -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보다 높여서 제시(4.1%→5.0%)하고 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활동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추정. 다만 최근 당국의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문의 더딘 회복과 수출 둔화 가능성 등이 금년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
- 중국 단기금리, 2년 만에 최고치. 신용 수요 회복 등에 기인
 - 2/8일 익일물 레포금리의 거래량 가중평균은 이전 최고치보다 8bp 높은 2.3589%를 기록. 최근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 수요가 회복되면서 단기 금리가 상승(Citigroup)
- OPEC 관계자, 금년 하반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상회할 가능성
 - 이란의 OPEC 사무소 대표인 애프신 자반은 중국이 통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한다면 유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. 한편 최근 OPEC의 생산 관련 결정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절했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- 주요 경제 이벤트(2/9 현지시각 기준)
 - ECB 데 쿤도스 부총재 강연, 영란은행 통화정책 청문회
 - 미국 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독일 1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통화량 급증, 고물가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Lessons from the great reflation)

- 통화정책의 목표가 통화량이 아닌 금리로 바뀌면서 통화량 지표에 대한 관심이 감소. 그러나 국제결제은행(BIS)은 물가가 높을수록 통화량과 물가 간 상관관계수가 높아진다고 분석. 또한 1970년대 중반에도 확장적 통화정책이 고물가를 유발
- 코로나19 기간 미국 통화량 증가율이 20%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 물가상승률 역시 5% 수준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은 모습.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고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장기간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할 소지

■ 미국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조달, 연준 정책과의 간극을 반영 - Financial Times

(Wall Street finds it easier to raise money despite rising interest rates)

-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연방기금금리는 1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채권금리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.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지수는 작년 8월 이후 최저 수준
- 이는 연준과 시장의 향후 인플레이션 및 금리경로 전망이 상이하기 때문. 연준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시장에서는 연말 금리인하를 예상
- 금융여건은 통화정책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타내기에 매우 중요.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융여건 완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어,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연준에게 정책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

■ 미국 회사채 가격 상승, 향후 경기 및 기업 건전성 관련 시각 변화를 시사 - WSJ

(Corporate Bonds Bounce Back After Horrible 2022)

- 회사채 가격은 작년에 ①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②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큰 폭 하락. 하지만 연초 이후 대부분의 회사채 가격이 상승
- 이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관련 시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. 최근 공개된 많은 경제지표들은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. 또한 다수 기업의 재무상태가 당초 우려한 것보다 양호하다는 평가가 증가
- 한편 기업들은 그 동안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대출에 주로 의존해야만 했지만,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회사채 발행을 점차 확대

■ 영국, 경기침체는 피할 수 있겠으나 가계 체감경기는 악화될 소지 - 블룸버그

(UK May Avoid Recession But 1-in-4 Unable to Pay Their Bills)

-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(NIESR)는 IMF의 다소 암울한 전망과 달리 금년 영국이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전망. 금년은 미미하지만 0.2%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, '24년 및 '25년에 각각 1%, 1.6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다만, 영국인 4명 중 1명은 금년 수입으로 에너지·식품 대금을 전액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. 중산층 가구가 작년 4,000파운드 규모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겪으면서 생계가 위협. 에너지 가격은 하락세에 있으나 라우 전쟁 이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,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은 불충분
- 임금이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활수준이 지속 저하. 인플레이션은 '25년말까지 영란은행 목표치(연율 2%) 이내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

■ 미국 기업, 구인난 등으로 인력관리 관련 변화의 조짐 발생 - 블룸버그

(US Companies Aren't Firing as They Usually Do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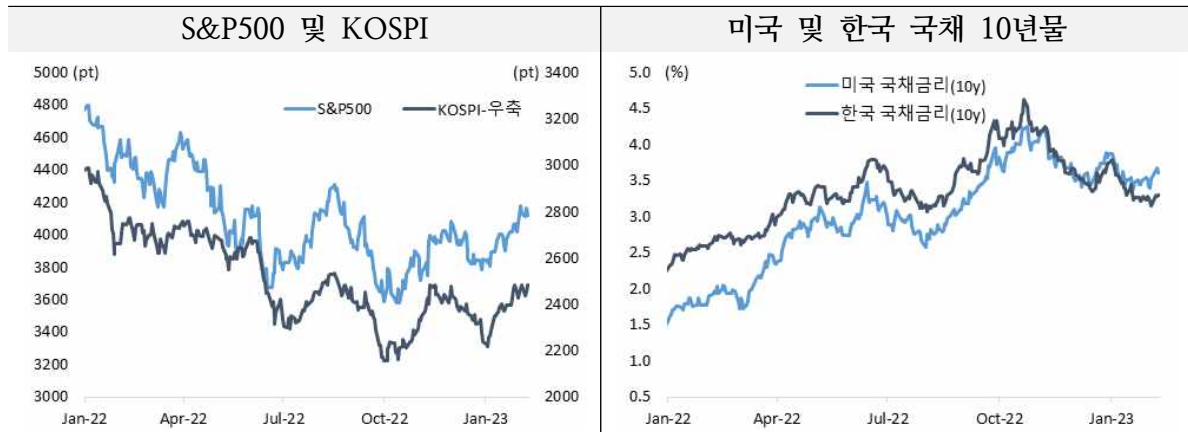
■ 미국 은행권, 무이자 예금 감소 등은 수익성 제고에 부정적 - WSJ

(Banks' Golden Deposits Could Turn Back to Lea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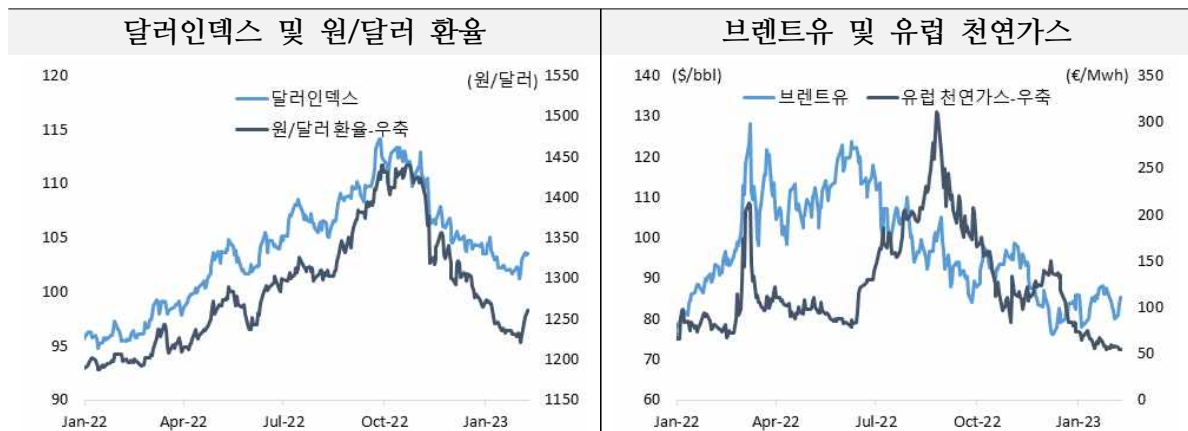
■ 작년 일본의 대규모 외국 채권 매도, 금리상승 등을 대비한 조치 - WSJ

(Japanese Make Record Foreign Bond Sales as Hedging Costs Rise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